

# 평 화 선 언

피폭60주년인 8월6일, 30만이 넘는 원폭희생자들의 영혼과 살아남은 우리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그날을 돌이켜보는 통곡의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것은 핵무기 폐기와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한결같이 노력해온 피폭자들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들 자신이 이룩해야 할 책임을 일깨우고, 행동으로 옮기는 결의를 다지는 계승과 자각, 결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결의는 모든 전쟁희생자와 세계 각지에서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어우러져 지구를 감싸는 하모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선율은 「이런 고통을 다른 누구에게도 겪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피폭자들의 목소리이며, 종교와 법률이 한목소리로 설파하는 「적을 사랑하라」입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책무로서 우리들은 이 진리를 특히 「아이들을 죽이지 말라」라는 말을 국가와 종교를 초월하여 인류 최우선의 공리로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9년전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이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주권국가의 의사로서 이 진리를 영구히 채택한 일본국 헌법은 21세기의 세계를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금년 5월에 열린 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회의에서 밝혀진 것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핵보유국 및 핵보유 희망국이 세계의 대다수 시민들과 국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인류를 멸망의 길로 몰아넣는 위기에 빠져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힘은 정의」를 전제로 핵무기 보유를 입회증으로 하는 「핵클럽」을 결성하고, 마스크를 통하여 「핵무기가 당신을 지켜준다」고 하는 허위의 주술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반론할 수단을 갖지 못한 많은 세계의 시민들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UN에서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생각을 관철할 수 있는 거부권을 이용하여 세계의 대다수의 목소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하여, 가맹도시가 1080개로 늘어난 평화시장회의는 현재 히로시마에서 제6회 총회를 개최하여 재작년에 채택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긴급행동」을 개정하였습니다. 목표는 전미시장회의와 유럽의회, 핵전쟁방지 국제의사회 등 전세계에 퍼져있는 다양한 조직과 NGO,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협력의 틀을 넓히기 위한, 그리고 세계의 시민들이 「지구의 미래는 마치 자기 한사람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신의 책임에 눈뜨고, 새로운 결의로 핵폐기를 목표로 활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들은 UN에 다수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10월에 열리는 UN총회의 제1위원회가 핵무기가 없는 세계의 실현과 유지를 검토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안합니다. 그것은 제네바에서의 군축회의, 뉴욕에서의 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회의가 모두 성과없이 끝난 이유가 어느 나라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장일치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UN총회가 이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20년까지 핵무기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2010년까지 책정할 것을 기대합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오늘부터 내년 8월9일까지의 369일간을 「계승과 자각, 결의의 해」로 정하고, 세계의 여러 국가, NGO 및 대다수 시민들과 함께 전세계 여러 도시에서 핵무기 폐기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전세계 도시의 목소리를 존중하여 제1위원회 및 총회 석상에서 다수결에 의한 핵무기 폐기 실현을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일본정부에게는 해외 및 피폭지역도 포함하여 고령화한 피폭자들의 실태에 맞는 따뜻한 원호대책의 충실을 촉구합니다.

피폭60주년인 오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우리들의 책임을 겸허하게 재인식하고, 모든 원폭희생자의 영전에 애도의 마음을 바칩니다.

「편히 잠드소서.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2005년 8월 6일

히로시마시장 秋葉 忠利

번역 : 일본컨벤션서비스 주식회사